



아직,
모르셨나요?
예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혜택

예술인 복지를 받기 위한 첫걸음!

신청도 하고 혜택도 받고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신청하세요!

예술활동증명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분야

문학, 미술(일반·디자인공예·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공연), 만화

※분야별 예술 활동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포함



예술인만을 위한
관람료 할인 및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예술인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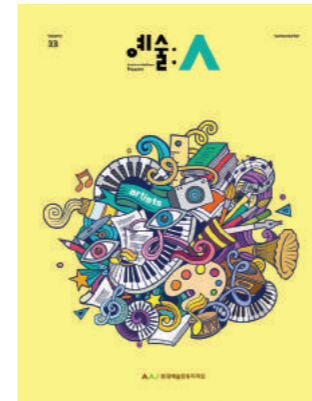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제공

신청자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 박물관 관장 또는 설립자

신청방법 및 문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i.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Cover Story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의 눈으로 바라
보고 평범함을 수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예술'
이라 칭할 필요가 있을까요. 낯설게 보
고 색다르게 접근함으로써 '창조'되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것이 예술의 가치이자 의미,
예술이 평범할 수 없는 이유이자 또한 비범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Volume. 33

발행 2020년 2월 11일

발행인 정희섭

편집인 정철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전화 02-3668-0200

홈페이지 www.kawf.kr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02-515-3681

비매품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인사말	
04	2020 New KAWF	2020년에도 이어져나갈 예술인 복지
08	프롤로그	예술, 창조인가?
10	포토에세이	오래된 미래, 인류의 예술
12	스몰토크	예술, 창조에서 변용으로
16	스몰스텝	미술가의 신분과 처우,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20	스몰명킹	미디어아트를 통해 바라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예술
24	예술인 인터뷰1	경기민요 하는 전통예술인, Call me by 'B급 소리꾼'
28	예술인 인터뷰2	노동 현장들 '예술'로 포착하다
32	예술인 인터뷰3	지역 예술활동의 현실을 말하다
36	예술인 인터뷰4	전통예술인, 예술과 삶을 이야기하다
40	칼럼1_지역예술인	지역 속 지역 경쟁에서 지역예술인으로 살아남기
42	칼럼2_전통예술인	심과 노동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는 예술인
44	칼럼3_전통예술인	전통예술가 해외 진출, 성공처럼 보이는 그 이면
46	예술인 앞과 뒤	열정과 서정의 무대의상, 누가 디자인했나?
52	KAWF 레시피	기본에 충실한 맛집, 예술활동증명
54	KAWF 데스크	예술인 복지를 위한 함께 이야기
56	KAWF 상담실	
58	KAWF NEWS	
60	예술인패스	

2020년에도 예술인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뀔 때 다짐하는 시작은 늘 기운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그 시들어진 마음을 다시
추슬러서 연말까지 잘 간직하자고 다짐해봅니다.

100m 경주는 100m까지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지나서까지 달려야 합니다. 물은 100℃에서 끓는 게 아니라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를 타고 휴게소에 이르게 되면 대개
“휴식 시간은 15분입니다”라고 안내하는데, 그러면 승객들은
15분이 거의 다 되어서야 모여들고, “15분 후에 출발합니다”
라고 하면 그 전에 다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 재단 채용과정에서 만난 인상 깊은
면접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자세로 일을 하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용무가 있어서 기관을 방문했는데도 문 앞에서 망설이거나,
들어와서도 쭈뼛거리는 분들이 있더군요. 저는 그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먼저 말을 건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최종합격을 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를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왔던가'하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재단은 예술인들에게 더욱 다가가고자 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도입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재단은 더욱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헤쳐 나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마음을 잘
간직해서, 더 많은 보람을 안고 올 연말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예술인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희섭

2020년에도 이어져나갈 예술인 복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지원대상을 1천 명 증원했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의 질적 성장을 꾀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시범 사업 시행, '예술인복지위원회'와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예술인 복지를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 또한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법률지원도 꾸준히 확대하고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20년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생계와 창작에 실질적으로 가닿는 사업을 착실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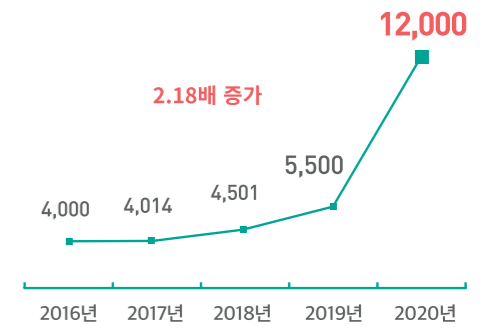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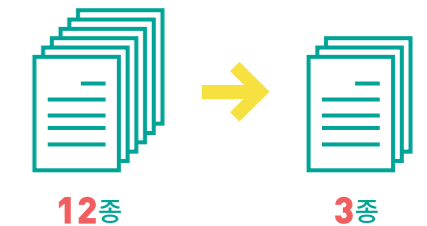
창작준비금 지원대상 확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작던 5,500명에서 올해 12,000명으로 지원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다. 또한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혜택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서류 간소화

2020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복잡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었던 예술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예술인 학부모, 어린이집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서 제출

재직증명 대신 예술활동증명서로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20년 기준 3월 기준 연장반) 신청 및 우선 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 확인 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2020년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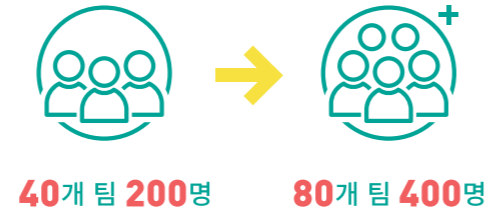
*0~2세의 경우, 부모가 모두 연장보육 필요 사유(취업 등)를 증빙해야 기본 보육 시간(9~16시) 이후 19시 30분까지 연장하여 보육 지원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 우선 입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기획사업 확대

지원대상 증가

2019년 새롭게 신설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사전기획을 통해 보다 알찬 협업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2020년에는 사업을 2배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40개 팀 200명에서 올해는 총 80개 팀 400명으로 사업의 규모가 늘어난다. 또한 지역예술인의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업사업도 처음 시도한다.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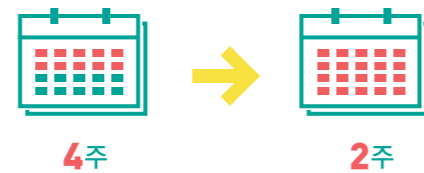
재신청 가능기간 확대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가 '예술활동 증명'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에는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재단의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재신청 기간이 촉박하다는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 2020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신청 가능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소요시간 단축

예술인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심의 절차가 도입되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 심리상담지원 확대

예술인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지원을 확대한다. 2019년에는 450여 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8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규모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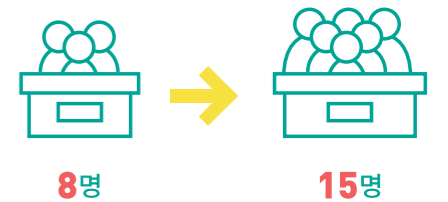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해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다. 11월 18일부터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시행되고 있다.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되었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은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정식 운영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용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인다.



예술인 법률 컨설턴트 확대

법률 컨설턴트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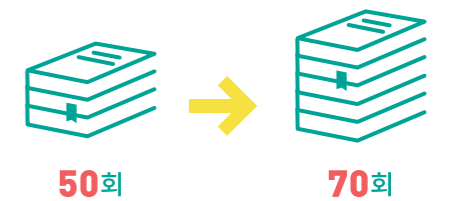
미투 운동으로 대두된 성폭력피해 등 예술인들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로 재단을 통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예술인 법률 컨설턴트를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더 꼼꼼한 피해 접수와 초기 상담 진행으로 강화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권리 증진 교육기회 증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기회를 기존의 50회에서 70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바로 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교육을 수료한 프리랜서 예술인은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reation

예술, 창조인가?

신(神)이 우주 만물을 처음 만들고
전(前)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

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말은
언제나 예술과 동격이었다.

예술,

초월적 존재가치와의 견줄이 아닌
인류 삶에서 다르게 낯설게 보는 것.

그리하여

우주 만물 속,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메.이.커maker

예술은 창조다!



© Mibble M./flickr

17,500년 전 프랑스 도르도뉴,
라스코 동굴 벽에는
말과 들소, 사슴 등을 새긴
온갖 동물 그림들로 넘쳐났다.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바라던
인류의 염원은
동굴벽화를 남기고
그림의 시원(始原)을 만들었으며
스스로 그림 그리는 인간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 뉴욕 브롱크스,
거리 곳곳의 벽에는 강렬한 색채와 격렬한 느낌의
낙서 그림들로 범람한다.

반항의 몸짓으로 저항의 표현으로
낙서인 듯 그림인 듯한 낙서 그림은
거리의 예술, '그래피티(Graffiti)'가 되었다.

동굴벽화에서 거리벽화까지
오래된 미래에도 새로운 과거처럼
인류는 스스로 그림 그리며 예술을 할 것이다.

인류는 호모 핑겐스(Homo Pingens),
그림 그리는, 인간이므로...

예술, 창조에서 변용으로

프랑스 화가 마르셀 뒤샹의 작품 <샘>처럼 일상을 넘어 낯설고 생소한 예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이것도 예술이 되나'하는 의구심은 창조적인 예술의 경계와 가치 사이에서 종종 혼돈을 불러온다.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과 시선에 기반한 예술의 표현 문제를 예술작품 속 비화를 통해 접근해본다.

글 정수경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교수

도리스 살세도 <무제>

낡고 허물어져 가는 도시의 어느 공터에 수천 개의 버려진 의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혹자는 의자의 압도적 양에 감탄할 수도 있지만, 혹자는 같은 이유로 눈살을 찌푸릴지도 모른다. 동네마다 고물상 한 군데쯤은 있던 시절을 살아온 이들에게는 낯설지 않을 이 풍경이 실은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품이라면? 그렇다. 이것은 콜롬비아 출신의 저명 작가 도리스 살세도(Doris Salcedo, 1958~)가 2003년 제8회 이스탄불 비엔날레에서 약 1,550개의 의자를 쌓아 선보인 설치 '작품'이다. 제목이 없는 이 작품을 사진 속 누군가는 무심히 스쳐 지나고 있다. 아마도 저 장소가 비엔날레의 전시공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게다. 낡은 의자 하나는 고물상으로 가기 십상인데, 낡은 의자 1,500개가 모인들, 뭐가 달라진다는 것일까? 도대체 이 작품의 예술성은 어디서 어떻게 발휘되는 것일까?



© LauraJackson1992/fli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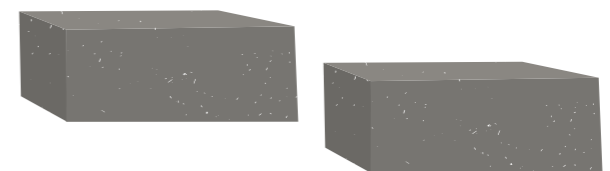
피터 아이젠만 <홀로코스트 기념비>

독일 베를린시 중심부, 19,000㎡의 광활한 땅에 2,711개의 콘크리트 석판이 줄지어 놓여있다. 방대한 규모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콘크리트 조형물의 모양새는 단순하기 짝이 없다. 이 단순한 직육면체의 집합체가 해체주의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1932~)의 설계로 조성된, 그 유명한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비>다.

하지만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이곳을 누군가는 그저 산책이나 데이트 코스로 여기고, 또 누군가는 석판 위로 뛰어다니거나 그 사이에서 슬래잡기를 하는 놀이터로 이용한다. 그들에게도 이것은 '작품'일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작품이라면, 그 까닭은 또 무엇일까?



© Dannis van der Heiden/flickr



마르셀 뒤샹 <샘>

20세기 최고의 아방가르드 마르셀 뒤샹이 예술계에 <샘>을 던진 지 어느덧 100년도 더 되었다. 그의 레디 메이드(Ready-made)는 무릇 작품이란 예술가의 손으로 새롭게 창조된 오브제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려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창조적 해방을 선사했지만, “예술가의 선택만으로 일상 사물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진술이 축자적으로 오독되면서 현대미술에 대한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초래하기도 했다. 작품의 외양과 제작에 국한하여 이해되었어야 할 진술이 작품 일반에 관한 진술로 신봉되면서, 작품의 내적 가치에 관한 고민에 휩쓸려 유실되고 만 것이다. 이것이 뒤샹이 원한 바가 아님은 물론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주목해 다시 읽어야 할 키워드는 그가 ‘The Richard Mutt Case’에서 스스로 대문자로 표기해 강조했고, 그래서 오독을 불러일으켰던 ‘CHOSE’다. 하필 그의 선택이 소변기였던 까닭인지, 많은 이들이 이 선택이 치기어린 것이거나 반달리스트(Vandalist)적인 것이었다고 가볍게 다루고 만다. 그 가운데, 뒤샹의 ‘CHOSE’ 아래 깔려 있는 미적 경험에 관한 고민은 간파되지 못했다, 아쉽게도.

로버트 라우센버그, 머스 커닝햄, 존 케이지 등 여러 예술가들의 멘토였던 뒤샹은 후배 예술가들을 만나면 “요새 무슨 작업 하니”라고 묻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언제나 “요새 어떻게 사니”라고 물었으며, “작품에는 흥미가 없고 삶에 관심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의 ‘CHOSE’가 ‘아무거나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따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샘>의 진짜 유산은 ‘선택’으로 포장된 ‘경험’이라는 알맹이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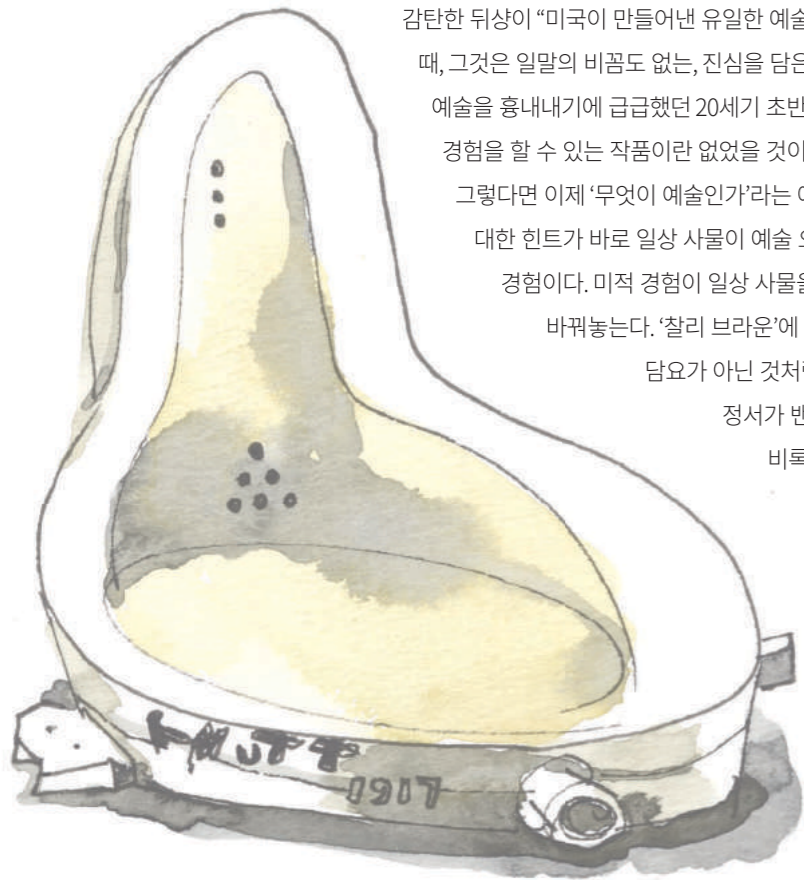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막 건너와 맨해튼 신도시의 건축과 탁월한 상하수도 배관시설에 감탄한 뒤샹이 “미국이 만들어낸 유일한 예술은 배관시설과 다리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일말의 비꼼도 없는, 진심을 담은 것이었을 터. 그에 반해 유럽의 선진 예술을 흉내내기에 급급했던 20세기 초반 미국 미술계에 뒤샹이 감탄하며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예술철학적 물음이 남게 된다. 그 물음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일상 사물이 예술 오브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놓인 미적 경험이다. 미적 경험이 일상 사물을 그 모습 그대로 특별한 오브제로 바꿔놓는다. ‘찰리 브라운’에 나오는 라이너스에게 담요가 그냥

담요가 아닌 것처럼, 누군가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비롯된

정서가 뱀 사물은 특별한 오브제가 되는 것이다.

비록 소변기를 ‘샘’으로 규정한 뒤샹의 변용이 쉽게 체감되거나 납득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예술의 의미와 가치는 수용자의 미적 경험 수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살세도의 의자들과 아이젠만의 콘크리트 석판들이 어떻게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지 알 법도 하다. 하지만 예술가의 미적 경험에 기 반한 일상 사물의 선택과 변용은 그 사물의 존재론적 지위를 잠정적으로만 바꿔놓을 뿐, 그 오브제가 진정 작품으로 꽃 피어나는 것은 작가가 아닌 수용자의 미적 경험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그저 스쳐 지나려던 누군가가 작가가 구축한 오브제의 감각적 힘에 붙들려 작가가 제시 하는 의미와 경험을 공유할 때 비로소 그 오브제는 잠재대를 벗어나 현재적으로 작품이 되는 것이다. 살세도의 2003년 작 <무제>와 아이젠만의 <홀로코스트 기념비>는 공히 방대한 규모 혹은 집적에 의해 일상을 훌쩍 뛰어넘는 강한 감각적 호소력을 획득한다. 의자 하나, 석판 하나 었더라면 얻지 못했을, 그 강렬한 시각적 장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작품을 지나칠 수 없게 만들고 작품에 관한 체험의 방아쇠를 당긴다. 여전히 불발의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두 작품이 얻은 명성은 작품의 시각적 장관이 수용자의 미적 경험이라는 과녁에 대체로 명중했음을 뜻한다. 물론, 명중은 시각적 강렬함이나 장관만으로 되지 않는다. <샘>의 인상도 강렬했으나, 지금껏 도 그 오브제를 진심 ‘샘’으로 여길 수용자들은 별로 없다. 이는 아마도 뒤샹의 미적 경험이 수 용자들에게 호소력을 갖기에는 너무도 특수하고 개인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비해 살 세도의 의자와 아이젠만의 석판은 수용자들의 보편적 공통감에 호소할 수 있는 은유의 성격 을 지니므로써 과녁에 명중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다. 의자를 볼 때면 그 의자에 앉았을 누 군가가 떠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성인 한 사람이 누우면 딱 좋을 석판은 자연스럽게 관과 비석의 결합체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우리 시대 예술의 가치는 창조가 아닌 변용으로

인터넷 포털에서 아이젠만의 작품을 검색해보면 이 석판을 배경으로 찍은 셀피를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앙상한 몸 혹은 시신을 배경으로 한 셀피로 합성한 사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그곳에 가서 그저 놀 듯 체험한 사람들마저도 그 석판을 인간의 은유로 경험했음을 방증 한다. 살세도의 낡은 의자들 역시 힘겨운 삶을 버텼을 어떤 이들의 삶을 생생하게 환기한다. 그럴 때 의자와 석판은 새로운 맥락과 큰 울림을 가지게 된다. 구조적으로 강화된 시각성과 보 편적으로 확산 가능한 오브제의 은유성. 이것이 두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물을 변용하여 성공한 수많은 작품들의 공통점이다.

살세도와 아이젠만의 작품은 우리 시대 예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단면도 보여준다. 예 술의 가치는 이제 새로운 오브제의 탁월한 창조에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보다 예술은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이들,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데 바쳐지는 듯하다. 부와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맘껏 피워내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스러져간 이들. 그들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느껴질 때, 이 기억과 애도의 행위는 보편적 울림을 갖게 된다. 그럴 때 의자 하나, 석판 한 개, 낡고 헤진 옷 한 벌이 그렇게 스러져간 사람들을 대신하여 요청하는 기억과 애도가 그 일상 사물들을 그 무엇보다 큰 감성적 울림, 인식 전환을 일으키는 예술작품으로 만 드는 것이다. 바야흐로, 창조가 아닌 변용의 시대다. ▲

정수경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 삶에서 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카데미와 미술 현장을 오가며 고민하고 있으며, 고민의 결과를 글과 강의로 풀어내고 있다. 서울대, 홍익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미술가의 신분과 처우,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글 이소영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그림을 사신 분 있나요?”

이 질문에 대답해보자.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들 것이다. 실제 내가 기업이나 기관에 미술사 강연을 다닐 때마다 자주 하는 질문이다. “미술가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까”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반문이기도 하다. ‘미술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누군가가 반드시 작품을 사야 한다’는 말에 아니라고 반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예술가들은 본인이 창작한 예술을 판매하며 생업을 일구어왔다. 때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주문도 받아들여야 했으며, 때로는 열심히 완성한 작품을 주문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직업적 예술가가 등장했고 시대에 따라 예술가들의 처우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다양한 예술가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직업으로서의 미술가’의 역사를 쫓아가 보고자 한다.



이름 모를 미술가에서, 이름 있는 미술가가 되기까지

미술은 수천 년 전에 인간이 동굴의 벽에 이미지를 그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흔적이 없을 뿐일지도 모른다. 당시 그들이 자신해서 그림을 그린 것인지, 무언인가 답례를 받고 그림을 그린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신전이나 조각 역시 예술가, 더 자세히 말하면 조각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확실한 건 그들은 작업을 한 대가를 받아 살아 갔을 것이다. 심지어 이집트의 ‘데이르 엘 메디나(Deir el medina)’라는 마을은 당시 이집트의 기념물들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살았던 마을인데 왕가의 계곡에서 원형을 간직한 채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집트의 예술가들은 함께 일하며 모여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세시대로 넘어가보자. 많은 예배당과 스테인드글라스 장인들 역시 직업적 예술가였다. 유리 공예가와 목수와 가구 장인들은 서로 협업하며 사람들이 감탄하는 작업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길드(Guild)’라는 조직을 운영했다. 길드에서 훈련받은 사람만 미술 작품을 진행할 수 있었고, 목수, 유리공예, 금속 세공인 등의 길드가 운영이 되었다. 하지만 이 예술가들 역시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 그들은 어쩌면 ‘예술가’라는 단어보다는 ‘장인이나 기술자 또는 노동자’에 가까웠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像, 1501-1504(199×417cm, 아카데미 미술관)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러서야 직업으로서의 예술가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16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지금의 학교와 비슷한 아카데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이 아카데미에서 미술인들을 길러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그 예다. 그들은 공방을 운영하며 주문을 받았고, 주문이 많아지면 조수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서양에서는 이 르네상스 시기부터 예술가들의 처우와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조각과 회화를 하는 예술가들은 순수창작을 하는 예술가들로 여겨졌고, 반면 도자기나 가구는 공예로 분류되어 기술자로 구분되었다. 값비싼 물감이나 귀한 대리석으로 진행해야 하는 회화나 조각은 권력자나 부유한 자들의 지위를 대변할 수 있었다. 또한 교회 역시 르네상스 화가들에게 좋은 미술 시장이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1564)가 만든 유명한 ‘다비드’ 역시 1501년 8월 16일경 피렌체의 건축 위원회와 시장이 공화정을 대변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위해 의뢰한 것이다. 스물여섯밖에 안된 젊은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3년 후인 1504년 이 거대한 조각을 완성해냈다. 당시 조각이 어디 놓일지 많은 이들이 고민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각을 만든 미켈란젤로에게도 의견을 물었다고 하니 창작자의 의견도 중시 여기는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귀족보다 더 귀족이었던 미술가



- 1 피터 파울 루벤스의 자화상, 1623(유화작품, 61×45cm)
- 2 르네상스시대의 위대한 예술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 3 미국의 네오파프 아티스트, 제프 쿤스의 '브랑쿠시 토끼'
- 4 현대미술가 중 가장 주목받는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 (For the love of god, 2007)'

‘직업으로서의 화가’ 중 역사에 남을 만큼 큰 부와 명예를 누렸던 화가로는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를 빼놓을 수 없다. 17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시장 경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왕족과 귀족의 주문에 따른 제작이나 후원이 주를 이뤘지만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우 사정이 좀 달랐다. 시장경제가 탄탄해지면서 중산층이 새로운 미술품 소비의 주체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로소 이 시점에 이르러 화가들은 주문과 후원에서 조금 자유로워져 자신이 창작해서 진행하는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당시 네덜란드 미술 시장은 중산층 컬렉터를 겨냥해 매년 7만 여점의 작품이 시장에 등장했을 정도였다. 루벤스는 예술적 재능 못지않게, 외국어 능력도 뛰어났다. 당시 그의 수익은 웬만한 귀족들보다 높았다. 당시 평균 귀족들의 연봉이 6,000-14,000달러였다면 루벤스의 연봉은 3만 달러 정도였다고 하니 상당한 명예와 부를 누렸다. 34세였던 젊은 그에게 그림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제자나 조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하니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 같은 존재였다. 루벤스가 세상을 떠날 당시의 재산을 지금의 한화로 추측해보면 약 196억 원 정도다. 당대 유럽의 지도자였던 스페인의 펠리페 4세, 영국의 찰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3세도 루벤스의 팬이자 후원자였다.

이름이 없는 노동자들에서 시작한 직업 미술가의 역사는, 길드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중세시대를 거쳐 주문량이 밀려서 조수를 써야 하는 스타 예술가의 시대인 르네상스를 지나, 궁정 화가가 되면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를 거쳐 왔다. 그리고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는 미국의 신흥 지식인과 부자라는 또 다른 후원자들이 등장했기에 창작을 업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은 과거의 다빈치나 루벤스 그 이상으로 성공한 아티스트도 많다. 실제로 영국의 데미안 허스트와 미국의 제프 쿤스는 여전히 부자 아티스트 서열 1, 2위를 다투는데 데미안 허스트의 재산은 1조가 넘는다, 하지만 모든 아티스트가 그 시대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빈센트 반고흐처럼 살아생전에 전시회도 한 번밖에 열지 못하고, 판매해본 작품도 1점뿐인 예술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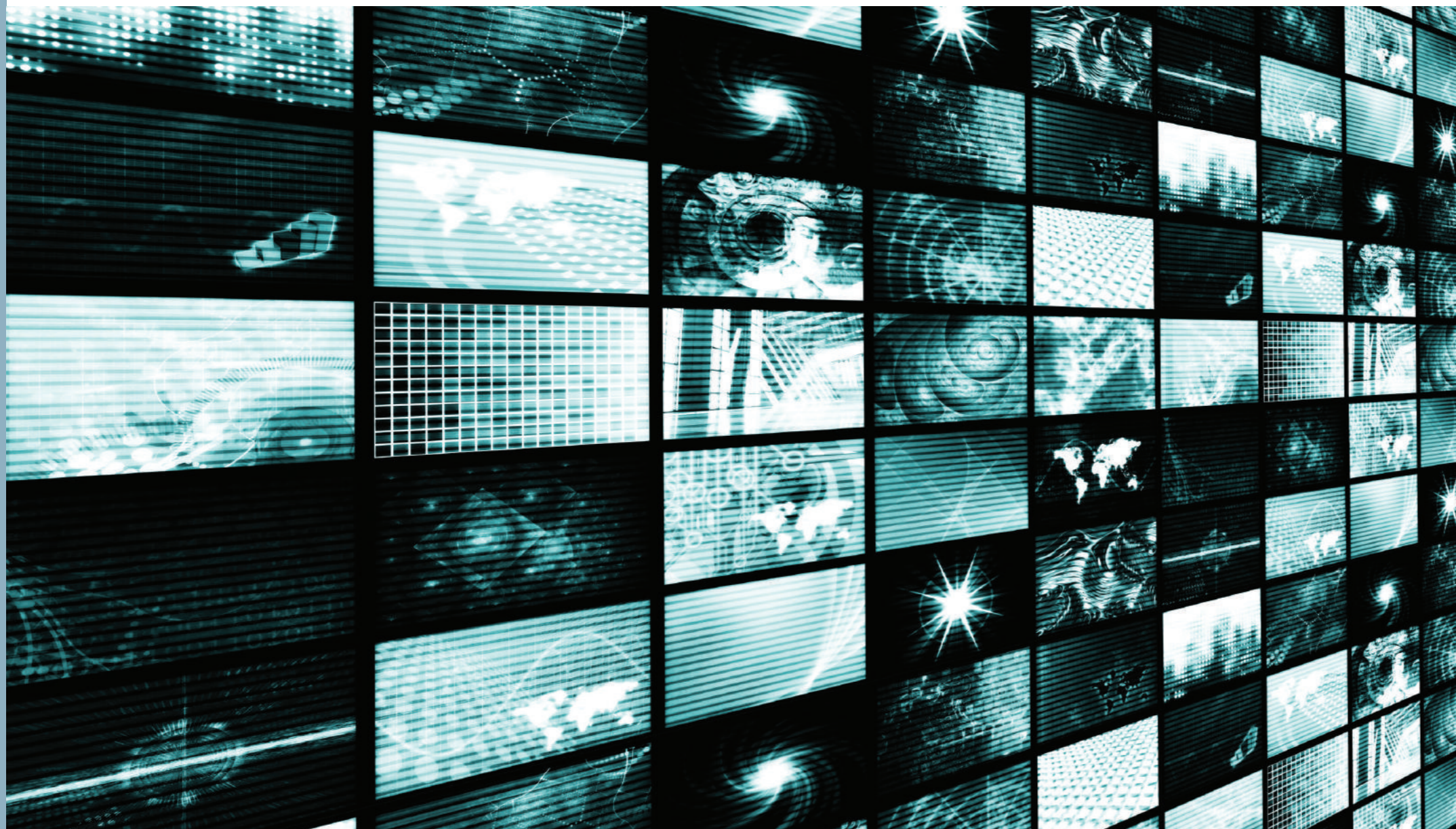
예술가의 처우와 인식은 시대가 흐를수록 좋아졌지만, 모든 예술가가 수직으로 향상되는 처우와 인식 속에 지냈던 것은 아니다. 미술가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꾸준히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후대들이 ‘더 예술하기 좋은 세상’에 사는 것과 동의어일 것이다. 반면 지금 우리에게 빈센트 반고흐와 같이 훌륭한 예술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예술가에 대한 처우도 1500년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소영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로 온·오프라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림을 전하고 있는 아트메신저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출근길 명화 한 점』, 『그림은 위로다』, 『명화 보기 좋은 날』, 『모리스 말머니-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림』, 『미술에게 말을 걸다』 등이 있다.

오래된 미래, 미디어아트를 통해 바라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예술

글 이현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인공지능(AI) 시대로 가고 있다. 예술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니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예술가들에 의해 더 진화, 발전하고 있다. 기술과 예술의 조합이 빛은 미디어아트, 그동안 해온 작업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예술이 어떻게 변화, 발전할 수 있을지 살펴해보도록 한다.

2016년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주창한 이래,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활발하다. 이 단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는데, 왜 한국에서는 특별한 열풍을 불러온 것일까?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그 사회가 신기술과 그에 대한 교육을 바라보는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이처럼 각별한 반응과 동시에 불안을 노출하는 현실은 신기술의 속성과 그로 인한 영향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지했으며 느렸음을 알려주는 지표라 말한다. 덧붙여 현재의 기술은 항상 신기술에 의해 개선되고, 대체되기 마련인데,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도 기존 자동화와 컴퓨터 기술의 발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단절적 변화가 아니라 강조한다.

이렇듯 수년간 각종 분야에서의 화두가 된 이 단어는 이제 그 여파가 예술계까지도 밀려오고 있다. 특히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인공생명(artificial life), 블록체인(block chain)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기술 세미나, 워크숍 등이 빈번히 열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연결해 작업하는 작가들을 발굴하는데도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날 예술가들이 새로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자 기술일까? 예전부터 있었는데 단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닐까?

AR, VR 혹은 이와 유사한 MR(Mixed Reality)의 형태들은 이미 80년대 후반 내지 90년대에 제프리 쇼(Jeffrey Shaw), 폴 서먼(Paul Sermon), 모리스 베나윤(Maurice Benayoun), 샤르 데이비스(Char Davies) 등의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제프리 쇼의 <Golden Calf>(1994)는 오늘날 이용되는 AR 기술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기술을 보여준다. 이 작업은 QR 코드나 피두셜 마커(Fiducial marker) 등을 통해 시도된 초기 기술 이후, 오늘날 대중화된 이미지 추적기술을 사용한다. 제프리 쇼의 <Legible City>(1988-1991)도 혼합현실(MR)의 좋은 예이다. 폴 서먼의 <Telematic Dreaming>(1992)은 우리나라에 인터넷과 PC가 널리 대중적으로 보급되기도 전인 1992년에 화상채팅과 같은 실시간 영상 전송 기술을 활용한 예술적 시도이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이들이 화상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마치 한 침대에 누워있듯이 서로를 느끼며 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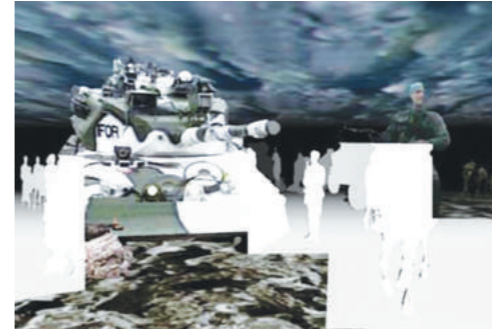
폴 서먼의 <Telematic Dreaming>. 1992 © paulsermon.org

샤르 데이비스의 <Osmose>(1995)는 몰입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가상현실을 경험케 한다. 이 작업은 3D 그래픽과 사운드, 그리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와 모션 트래킹 장치들이 함께 하며, 자신과 세계 사이에 감각적인 상호관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공간은 둘러싸인 주변 환경 속에서 체화된 인지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각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생태환경에 대한 성찰뿐 아니라 체화된 인지 등의 인지과학적 측면에서도 앞선 비전을 제시하는 점이 돋보인다.

1997년 제작된 모리스 베나윤의 <World Skin, A Photographic Safari in the Land of War>은 4면 영상 프로젝션 시스템을 통해 관객을 몰입적인 3차원 가상현실의 환경으로 위치시키는 케이브형 설치(Cave installation) 작업이다. 이 환경은 전쟁을 기록한 다양한 뉴스 사진들과 영화들에서 가져와 구성되는데, 관객은 같은 공간 안에 위치한 카메라를 마치 총처럼 들고 다니며 환경 내 영상 이미지들을 사진 찍을 수 있다. 관객이 사진 찍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마치 그래픽 피부가 벗겨지듯 실제 공간에서도 빈 공간으로 벗겨지는데 베나윤은 이를 통해 소리 없는 폭력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약 25년여 전의 작업들임에도 현재 시각에서 보아도 선구적인 작업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새로이 등장하는 VR작업들도 여러 첨단 영상 기술, 위치 및 동작 트래킹 기술을 통해 극대화된 몰입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이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는 VR 장비가 일반인들, 일반 예술가들이 구매 가능할만한 수준으로 저가로 판매되어 기술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알맞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크게 유행한 포켓몬 AR 게임 등도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인 블라스트 씨어리(Blast Theory)의 2001년 <Can You See Me Now?>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 이는 Ars Electronica에서 2003년 Golden Nica를 수상한 작업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예술가 그룹의 작업이 기업적 서비스나 상품보다도 앞서 나오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활용성을 견인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제프리 쇼의 <Golden Calf>, 1994 © jeffreyszawcompendium.com



모리스 베나윤의 <World Skin, A Photographic Safari in the Land of War>, 1997 © benayoun.com

지금까지 VR/AR을 중심으로 소개했으나, 인공생명체와 인공지능, 바이오와 로봇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많은 분야가 미디어아트와 여겨지는 수많은 예술 작업들 속에서 이미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멋지게 시도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새로이 인식하는 현재와 미래가 이미 상당한 예술작품들 속에서 오래전부터 태동하여 탐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기술적 활용에 있어서 원숙미를 보여줄 뿐 아니라 사회적이며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깊은 의미를 더한다. 미디어아트 분야에서는 다소 오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세기 이전의 혹은 수십 년 전에 시도된 이러한 작업들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는 여정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에 대하여 좀 더 친근해지는 기회가 된다.

끝으로 위해서 소개한 작업들을 포함해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과 기술을 자유자재로 접목한 작가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얼핏 기술 미디어가 예술의 변화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술이 기술의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 조각가, 건축가, 음악가, 광학자, 해부학자, 천문학자, 도시계획가, 공학자, 과학자, 발명가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융합형 인재로 인식된다. 백남준도 음악과 시각예술, 철학과 역사학, 물리학, 전자전기공학, 기계공학 분야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사고하고 상상한 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천재 아니었냐고? 좌절하지 말자. 이들이 계속하여 변화하는 기술사회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도전했는지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니 말이다. ▲

이현진

현대예술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작가. 현재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의 일환으로 '퇴계 성학십도 VR: 동양철학 개념의 체험적 시공간화 연구'를 책임, 진행하고 있다.

경기민요 하는 전통예술인, Call me by 'B급 소리꾼'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



전통이야말로 가장 트렌디해야 된다면 '전통'이라는 단어의 재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국악계의 놀 줄 아는 이가 있다. '경기민요'라는 국한된 장르를 초월해 다양하게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시대의 멀티플레이어, 이희문 이수자를 만났다. 그 앞에 붙은 술한 닉네임 중 가장 애정한다는 'B급 소리꾼'으로 지칭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통소리, 경기민요의 그 맛과 멋을 그럴 줄 아는 트렌디한 그와 함께해보자.

글 편집부 / 사진 이희문컴퍼니 제공

범상치 않은 차림새, 갈래가 모호한 목소리, 익살스러운 표정..., 한 인물에게서 풍겨 나오는 다양성은 우리 전통예술계로서는 큰 밑천이자 자랑이지 않을까. 연말인 데다 공연을 앞둔 터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희문 이수자는 자신의 이름을 새긴 이희문컴퍼니의 대표이자 예술감독이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수식어가 그를 따른다.

국악계 이단아, B급 소리꾼, 조선 아이돌, 국악 천재, 세계적인 난봉꾼 등 많은 수식어가 있다. 이중 'B급 소리꾼'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식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 한편으론 부담스럽다. 누가 시키고 등을 떠밀어서 해온 활동이 아니다. 그저 내 존재 이유를 알아보려고 발버둥 치온 시간 속에 붙여진 별칭인데, 고마울 따름이다. 그리고 B급은 A급보다 두려움 없이 놀 수 있잖은가, 거침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B급, 그래서 좋다.

B급의 느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가 미국 방송 영상을 통해서였다. 외국인과 대중이 당신의 음악과 공연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무대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즐겁고 신나야 그 에너지가 대중에게 전달되고, 그런 대중이 받은 에너지를 내가 돌려받는 과정이 되풀이되어야 한다. 한 공연이나 무대에서 서로가 클라이맥스로 가길 원하기에 대중,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연주자 혼자 아닌 대중과의 소통, 공감의 힘이 열광으로 표출되는 거 같다.

소리꾼 이희문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알려진 계기는 2017년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Tiny Desk Concert'에 출연한 영상 때문. 그가 결성

한 민요록밴드 씽싱(Ssing Ssing)의 공연 영상 조회수가 250만(현재 427만) 뷰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펑키한 헤어와 도발적인 비주얼의 인물에 관심이 쏠렸고 그 주인공이 바로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이었다. 다양한 장르와 합주하며 자유롭게 선을 넘나들지만 그에게는 그만이 지키는 선이 있다.

경기민요 하는 소리꾼이지만 여러 장르와 협업하고 있다. 선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느낌이 드는데, 경기민요 이수자로서 지키는 것이 있는가?

외형적으로 치장하고 무대에서 흥에 취해 놀아도 소리만은 올곧게 낸다. 록, 재즈 등 다른 장르와 합주를 해도 민요를 부르는 내 소리만은 제대로 하고 있다.

다양성 속에 올곧게 지켜내고자 하는 경기민요 이수자로서의 정체성이 느껴진다. 그런 경기민요의 가장 큰 매력과 특징이라면 무엇인가?

경기민요는 경기소리의 여러 장르 중 하나다. 텍스트가 시어(詩語)로 되어 있어서 '곱씹을수록 좋아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블랙코미디 같다는 생각도 든다. 경기소리의 음악적 성향은 화려하고 경쾌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애절하고 슬픈 내용이 많아서 아픔과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표현해놓은 유니크한 음악이다.

그가 말하는 독특한 음악, 경기민요를 하게 된 원천은 자신보다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는 어머니 고주량 선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리하는 걸 반대했고 어린 시절 결핍의 실체가 어머니라고 고백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가 부르는 '노들강변'을 좋아한다. "노들~강



<깊은(舍廡)사랑 中 사계축>



<깊은(舍廡)사랑 中 민요삼천리>

변에 봄버들 휘 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 허리를 칭칭 등
여매어나 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 잇을 이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
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

어머니가 활동하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 개인적으로 전통음악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예전엔 어떤 음악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글쎄, 전통음악 하시는 분들의 위상은 격상된 것 같다. 하지만 격상되었다는 것은 어려워졌다는 것이기도 해서,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이 된 듯하다. 지금은 보기 힘든 처마 밑 제비처럼 민요도 그렇게 우리 곁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요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던 쉬운 음악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민요를 하는 전통예술인이자 무대 위 감각적인 아티스트로서 당신이 생각하는 전통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전통이란 단어의 개념은, 일반인들과 다른 거 같다. 내게는 ‘현재진행형’이고 동시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통이라 불리는 것은 과거의 현재에 가장 합하거나 트렌디하거나 유행했던 것일 텐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도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되었을 때 미래에도 살아남아서 전통으로 불릴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합하거나 트렌디하게 동시대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인터뷰에서 “나의 행보는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중의 사랑이 덩으로 따라왔다”고 했다. 재즈, 락, 레게 등 다양한 대중음악과 융합하는 이유도 정체성 찾기의 연장선인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은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뒤늦은 감은 있었으나 전통음악의 기본소양을 충실히 갖고 닦은 시간을 깔고, 전통이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동시대를 살면서 함께 누렸던 다양한 음악들과 친해 보려고 노력했다. 어차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감동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27세, 늦은 나이에 시작한 경기민요는 명창 이춘희 선생으로부터 사사 받고, 현대무용가 안은미 선생과 함께는 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경험했다. 경계 없이 다양한 음악을 펼치는 프로젝트 밴드 ‘쌍쌍’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꾸준히 전통을 재창조하는 작업을 해온 이희문. গত과 도포를 벗으면 가발에 하이힐을 신고 무대를 장악하는 핫한 국악인이다.



<깊은(舍廡)사랑>

소위 핫한 전통예술인이지만 음악적 고민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이다. 그렇다고 스트레스까지 받지는 않는다. 많은 이들과 어울려야 하다 보니, 쉽지 않은 일들도 많지만 받아들여야 할 몫인 거 같다.

예술활동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다. 자신을 비롯해 전통예술하는 친구나 동료들의 예술활동이나 삶이 안녕하다고 생각하는가?

민요를 하는 어머니를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때는 결핍을 느끼며 살았던 거 같은데 지금의 소리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동료나 친구들에 비해 오히려 환경적 자산이자 혜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주위 전통예술 하는 동료나 선배들을 보면 안녕하지 못하다. 그래

도 열심히들 한다. 여러 콘텐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주하고 공연하며 살아간다.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대중의 호응과 무대가 있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안녕하지 않을까.

경기민요 소리꾼으로, 이희문컴퍼니 대표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그에게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라는 타이틀은 어떤 의미일까. 책임감이자 자신을 지켜내는 굳건한 버팀목이 아닐까. 다양한 장르와 자유롭게 합주하면서도 강단 있고 올곧은 정체성을 갖춘 B급 소리꾼, 가장 트렌디한 전통을 이어갈 줄 아는 이희문은 우리 시대 전통예술인이다.▲

이희문

서울예대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중앙대 국악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며 이희문컴퍼니 대표이자 예술감독. 전국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제23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전통예술 부문)을 수상했다.



노동 현장을 '예술'로 포착하다

모바일폰 포토그래퍼 황태석

아날로그 시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사진으로 '찰나의 예술'을 영원으로 만들었다면 디지털 시대, 자신의 작품이 가볍게 소비되기를 원하는 사진가가 있다. 하루하루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며 노동하는 틈틈이 모바일폰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황태석 작가다. 삶과 예술, 어느 것 하나 분리할 수 없는 예술노동자의 땀내 나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편집부 / 사진 박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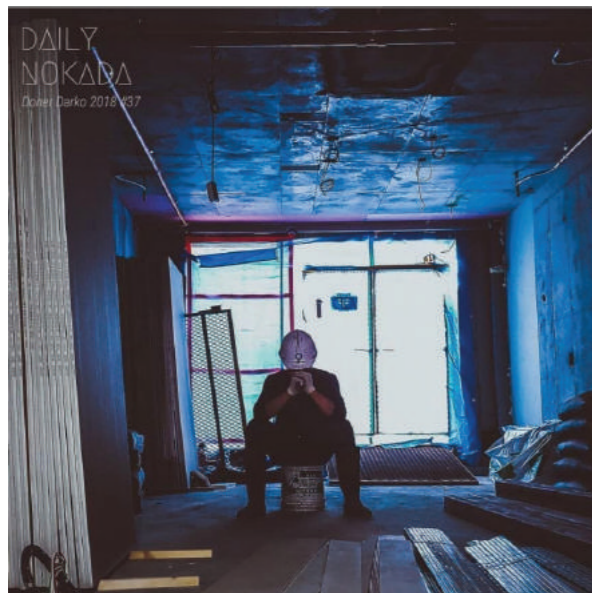
체험 삶의 현장에서 예술을 찍는 사진작가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근이나 못, 콘크리트가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다가오더라고요. 건물이라는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 그 물건들만이 가진 기능성 때문인지, 허투루 안 보였어요.” 그렇게 마감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는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포착한 작가의 남다른 시선이 대중을 사로잡았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양한 매체에 얼굴이 알려졌고 사진가 황태석의 이야기는 삶과 예술의 경계에 선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줬다. ‘노가다’라 불리는 막노동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버거움이 지금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즐거운 현장이 되었으니, 삶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의 상황이 아직 얼떨떨하고 쑥스럽다는 작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부지런한 예술가다. 자신이 사는 수유동에서 신설동에 있는 제법 큰 인력사무소까지 가야 한다는 그의 녹록찮은 일상이 궁금하다. “새벽 4시 20분경에 기상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첫차를 타는데도 인력사무소까지의 거리가 있어 일감이 배정되는 시간에 딱 맞추기가 쉽지 않죠. 보통 5시 30분에서 6시면 일터가 결정되고, 8시면 배정받은 일터에 도착해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꼭두새벽부터 시작되는 노동의 하루가 젊은 작가에게 신산할 법도 한데, 자못 유쾌하다.

“당장 오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선 일당을 주는 노동일이 아무래도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처음 인력사무소에 나갔던 날은 일이 없어 그냥 돌아왔고, 그다음 얻게 된 일은 일당이 18만 원이라 좋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일 끝나고 사흘간 쉬었거든요”라는 말에서 당시의 절박함과 노동의 고단함이 묻어난다. 열일곱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던 때 알게 되었다는 그림, 취미로 여겼던 그림으로 인정받으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래픽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황태석 작가. 20대 중반에는 그래픽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했는데, 오랫동안 열정을 쏟았던 개발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2년여를 알코올에 의지한 채 보냈다고 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당장 일상을 해결해 줄 출구가 필요했고, 그곳이 공사 현장이었다.

다른 시선을 특별하게 담아낼 줄 아는 예술인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았지만 다른 시선과 감각을 담은 사진들이 황태석 작가의 현재를 증명하듯 그가 모바일폰으로 찍은 공사 현장은 이제 그에게 예술 현장이 되었다. 휴식시간 짬잠이 찍은 현장 사진들은 집에 돌아와 작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낼 수 있는 보정작업을 거쳐 SNS에 올려졌다.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황태석 사진가의 작품들



“산만하게 얼기설기한 골조가 주위 경관을 해친다고 가림막을 치지만 우연처럼 배치된 건축 자재며 사물과 사물들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현장의 건물 골조, 지하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빛의 산란, 창문들에 설치된 차폐막, 바닥에 깔린 배관, 전기공사를 위해 늘어뜨린 호일 선 등은 모빌, 혹은 미술 구성처럼 작가의 모바일 프레임 안에서 그대로 예술이 되었다.

“공사장 주위가 보기 좋은 느낌이나 예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처음엔 산업 스파이나는 오해도 받고, 혹시 부실공사로 신고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들어요.” 사진 찍는 작가로 알려지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지난해에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그룹전도 가졌다. 관객들의 반응도 감사하고 중요했지만, 힘들었던 자신의 20대를 정리하는 느낌이어서 한결 가볍고 홀가분했다는 작가. 자신의 사진을 접하는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제 사진이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작품이니 예술이니 하면 어렵고 무거워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쉽게 쉽게 소비되는 세상인데, 제 사진도 그렇게 소비돼야 저도 부담 없이 찍고 올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예술활동증명 받는 예술인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그림 그리며 활동하던 때 예술활동증명을 받고 싶었는데 어렵더라고요. 함께 미술 작업했던 친구는 받았는데 저는 잘 안됐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자격 조건도 갖춰야 하고.” 처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인연을 그렇게 떠올리며 웃음 짓는 작가에게 간편하게 개선된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술인 복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다.

“예술인도 똑같은 생활인인데, 수입은 다른 생활인들처럼 정기적이지 않잖아요.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불안감 없이 작업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어서 좋죠. 첫 전시회 때 느낀 거지만, 사진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진 인화 비용이며 액자값에 놀랐어요. 이런 예술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좋죠.”

여기저기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그의 작품을 ‘포토에세이’로 엮어보자는 출판 제안이 있어, 글 쓰는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작가는 “5월 출간을 목표로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글은 잘 써보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아직은 쑥스럽다는 황태석 사진가

지 않아서...”라며 말끝을 흐린다. 이미 예술하는 노동자다운 맷집이 있는 만큼 잘할 거란 믿음을 갖게 하는 황태석 작가, 그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특이하고 재미있는 소재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번 사진들이 ‘공사 현장 프로젝트’였다면, 다음은 ‘쓰레기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쓰레기로 배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비닐봉지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한때는 용도가 분명한 물건의 포장지로 쓰였지만, 이제는 쓰레기장의 주범(?)이 된 쓰레기.”

테마가 있는 하나의 작업을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 황태석 작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다는 막노동은 언제까지 지속하게 될까. “확실히 정해진 건 없지만, 아직 더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당분간 공사현장 노동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하는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진정한 예술노동자, 황태석 사진가의 다음 프로젝트가 기다려진다.▲

황태석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디자이너로 활동하다 ‘데일리노가다(@dailynokada)’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사 현장 사진을 올리면서 유명해졌다. 독특한 공간 속 색다른 시선이 느껴지는 조형물 작업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는 노동하는 일상 속에서 5월 출간 예정인 작품집(포토에세이)에 몰두하고 있다.

지역예술인, 지역 예술활동의 현실을 말하다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혜택과 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예술의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중앙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 지역적 소외와 차별이 자칫 예술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 예술가(김자미 부산지역 아동문학가, 최제현 강릉지역 동네예술가)와 문화예술 행정가(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사무총장)를 통해 지역예술의 실태와 예술활동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편집부 일러스트 김기린



재단 사업에 참여해 본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최제현

2015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에 참여했어요. 퍼실리테이터로, 작가로 함께해 온 시간이었어요. 지난 5년간의 동행이 마치 '구명 튜브'를 잡듯 했던 거 같아요. 비바람 치는 망망대해의 가운데라고 여겨졌던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생각과 시선이 확장됐어요. 관계의 사이를 잇고, 협업의 가치를 느끼며 마치 항해술을 배운 거 같아요.

지역 유희공간을 작가들을 위해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원하는 부산문화재단 <반딧불이> 사업에 참여했어요. 반딧불이 들어와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 작품집도 내고 공모전에도 당선됐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작가들에게 강연의 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기뻛고, 지역민들과 향유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김자미

현재 지역에서 어떤 예술활동을 하고 있나요?



박상언

저는 지역적·문화적 특징이 있는 청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활동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청주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철의 고장'으로 '기록문화의 도시'라는 타이틀, 그리고 이로부터 시작된 '청주공예비엔날레의 도시'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재단도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청주시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설치미술가라고 부르지만, 저는 작업과 삶이 자연스러운 시공간 안에서 작업하는 '동네예술가'로 불리고 싶어요. 고향인 강릉에서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해 관계의 사이에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데, 올해는 말과 글을 재료로 삼아 예술활동을 했어요.



김자미

부산에서 동시, 동화를 쓰고 있어요. 동시 공부를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째예요. 그동안 동시집을 두 권 냈고 부산의 설화를 재구성해 설화집(공저)을 출간했어요. 동시 콘서트, 시화전을 열어 동시를 알리는 일도 하고요. <반딧불이>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진행해왔던 예술프로그램은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최제현

지역예술인들과의 교류나 연대는 어떤가요?

<반딧불이> 입주 전, 부산문화재단 안에 있는 감만창의촌에 입주하면서 교류하게 됐어요. 요즘은 문학을 한다고 문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예술로 재탄생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김자미



최제현

강릉이 '문화도시'라는 열풍이 불어서인지 예술가나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교류 및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죠.

예총과 민예총 예술인들은 광역문화재단의 사업과 기초문화재단 사업에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갖고 활동하고 있지만 신규예술인 그룹은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여 예술교육, 미술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뭉쳤다 헤어지는 느슨한 형태의 연대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 청년예술인들은 세분화된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개성이 강한 지역예술인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지역 기반의 실험적이고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예술활동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욕구와 개성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현 시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적으로 수도권과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박상연

청주는 20년 넘게 공예비엔날레를 개최했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등과 함께 다양한 민간 미술관이 개관하는 등 국내외 예술인들이 주목하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펼칠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지역 시민들에게 예술은 아직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인들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공간을 운영, 예술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관심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지역작가들은 중앙에 인지도가 높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어요. 문학에서만 보더라도 일단 발표 기회가 적어요. 지역 출판의 영세성도 한몫하고요.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공간마저도 서울 중심 인기작가에 편중되어 지역작가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을 수밖에요. 지역작가에 대한 의도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작품을 쓰면 돼'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좋은 작품의 기준은 뭔가'하는 물음도 생기죠.

지역예술인들이 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최제현

연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함께 감당해낼 동료 커뮤니티를 확보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참여했던 사업은 '퍼실리테이터 1명, 참여예술인 2명, 기관에서 1명'이 한 팀이었는데, 올해는 15명의 예술가들이 3곳의 기관과 함께했어요. 작년과 다르죠. 당연히 네트워크는 물론 예술로 표출될 수 있는 에너지 강도 또한 다르겠죠?



박상연



김자미



김자미

작업공간과 창작지원금 아닐까요. 지역 문학관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창작지원 또는 강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작은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작가를 상주케 해서 상생효과를 얻는 것, 도서관은 활성화되고 작가는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요.



박상연

첫째, 지역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입니다. 지역 기반 예총, 민예총을 제외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선행되어야 지역예술인을 위한 제도가 평등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지자체 사업 개발입니다. 현재 대다수 사업은 정부와 광역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예술인들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예산 지원 또는 사업 이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큰 몫을 하리라 봅니다. 충북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사업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 예술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예술인들과 연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예술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예술을 사회에서 함께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예술인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김자미

변방의 중심이 되기 위해 지역문화를 재조명, 재창조하는 작품을 쓰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작가들의 동시화전이나 낭독콘서트 열고 북 페어를 개최하는 등 부산 작가 알리기를 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일을 꾸준히 할 거예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향후 부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작품 써서 우주대작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단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예술인들과 충분한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면, 올바른 지역 문화예술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최제현



박상연

김자미 부산일보 신춘문예와 『어린이와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부산아동문학상, 사하모래톱문학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반딧불이 3호점에서 작품활동 중이며 동시집으로 『달복이는 힘이 세다』와 『여우들의 세계』, 『옛이야기 밥』 등을 펴냈다.

박상연 아르고미술관장을 시작으로 현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재단 업무를 비롯해 청주공예비엔날레, 한국공예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지역문화재단과 리더십』, 『숫자로 풀어보는 문화 이야기』 등이 있다.

최제현 관계의 사이를 예술로 잇는 '동네예술가'로 불리길 원하는 설치미술가. 2015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작가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으며 '도시슈메이트' 프로젝트 또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전통예술인, 예술과 삶을 이야기하다

전통예술의 정체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이자 금속공예가,
전통음악의 장르를 초월해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피리 연주자 겸 작곡가,
전통예술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전통 굿의 연주자이자 연기자가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대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글 편집부 일러스트 김기린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전통예술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승경란 금속공예가



말로 들어서는 도통 고개를 가웃하게 만드는 은입사(銀入絲) 공예. 대중적이지 않지만, 우리 전통의 가치와 문화를 잇고 있는 전통공예 예술인이 있다. “전통금속공예의 정수라 할 수 있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철, 동 등의 금속표면에 수많은 망치질로 곱게 쪼는 작업을 거친 후, 가느다란 금이나 은선으로 문양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은입사 공예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입사장) 전수교육 조교이기도 한 승경란 금속공예가다. 작업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무엇일까. “예쁜 것을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 전통예술에는 우리 국민만이 알고 느끼는 따뜻한 감성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이런 감성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전해주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전통예술인으로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녹록지 않은 현실을 버티는 사람들이 비단 자신뿐만은 아니라며 “주위 동료, 선배들을 보면 본업인 전통예술보다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예술인들이 견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전통예술 중 일부 종목은 활성화되어 후학양성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다수 취약종목은 배우려는 제자들까지 미약한 실정이라고. 이런 이유로 사라지는 분야가 많아지고,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져 힘들고 어려운 전통예술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한다.

우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성인 전통을 생명력 있는 전통문화로 계승·발전 시키고 싶다는 승경란 금속공예가, 장인(匠人)으로서의 본분과 후손들에게 은입사공예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당부의 말을 전한다. “전통은 우리의 미래, 전통은 그 나라의 국력이며 행복을 지향하는 인생길입니다. 전통을 아무런 수식 없이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경란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입사장) 전수교육 조교다. 다수의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경력이 있으며 그동안 ‘은실박이 이야기와 미학(개인전)’을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전(展), 전통공예 명품전 등에 참여해왔다.

전통음악의 요소나 틀에 구애됨 없이 저의 음악으로 들어주세요

박지하 아티스트



“제가 하는 음악은 전통음악의 요소나 방식, 틀에 구애됨 없이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만든 저만의 음악입니다. ‘전통예술, 전통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제 음악을 들으시기보다 ‘박지하’라는 한 음악가의 음악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통(Traditional)이라는 말보다 ‘초현대적인(Futuristic)’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음악 정체성에 대해 토로하는 젊은 예술인, 박지하. 피리, 생황, 양금 등 우리 전통악기의 새로운 소리를 찾아서 자신만의 음악과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연주자이자 작곡가,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통음악을 공부해왔지만,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들이 전통적인 요소의 하나라기보다 자신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 중 하나임을 강조하는 아티스트다. 연주뿐만 아니라 창작까지 하는 그의 작업 스타일이 궁금했다.

“되도록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서 무언가 만들어져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억지나 욕심으로 작업하게 되면 이후에 만들어진 음악에서도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들리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천천히 흐르는 삶의 속도에 맞춰 음악 작업도 조금씩 꾸준히 하고 싶다는 그에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저뿐 아니라, 많은 한국 예술가들이 다양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음악적인 색깔은 다르지만 큰 호응을 받는 건 그들과 다른, 전통예술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음악과 무대를 만들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전통을 전통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신처럼 새로운 작업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아가는 사람도 필요하다며 좀 더 다양한 생각과 시선으로 예술활동이 소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올해도 국내외 공연들이 많은데, 언제나처럼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큰 비전보다 자신 앞에 놓인 일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스타일이라는 젊은 예술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박지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을 졸업했으며 1집 ‘커뮤니언 Communion’을 발표하면서 솔로 활동을 시작했고 최근 2집 ‘필로스 Philos’를 발표하며 활동하고 있다.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소리와 공간을 청각적 감각으로 창작하며 다양한 사운드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통예술인들의 삶이 나아지고 설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진 피리 연주자



신명 나는 한 판, 대중과 소통하며 너나없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로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70호인 양주소놀이굿이 바로 그 전통의 곳이다. “무당과 마부, 악사 등이 재담과 소리를 주고받으며 노는 굿놀이로 소의 여러 가지 치장을 서술하고 소를 사고파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잘되도록 축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굿에 대해 설명하는 최우진은 양주소놀이굿 이수자다. 연희(演戲) 성격의 놀이문화로 과거 황해도와 기호지방(경기 및 황해 남부와 충남 북부)에 분포되어 오다가 현재는 경기도 양주군 일대에서 전승되는 소놀이굿은 농경의례적인 요소와 집안 번성, 자손 번창을 축원하는 의미에서 행해지고 있다. 쉽지 않은 분야에 뛰어난 젊은 예술인에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원래 악기를 좋아했는데 서양악기보다 우리 전통악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민요와 악기연주를 위해 양주소놀이굿 전수회관에서 레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 같아요”라며 “우리 음악에 끌렸고 악기가 좋았고 저도 모르게 흥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학에선 피리를 전공”했다고 덧붙인다.

전통예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그가 전통예술인으로서 갖는 현실적 고민은 무엇일까. “전통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요. 주변의 어렵고 힘든 친구며 선배들이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깝습니다.” 20대 젊은 예술인은 고민과 함께 희망 사항도 전한다. “우리 전통음악을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상설공연, 기획공연 등이 만들어지고 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소놀이굿,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최우진
대학에서 국악 피리를 전공했으며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이수자다. 현재 양주소놀이굿보존회 감사로 일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교육 및 홍보에 힘쓰고 있다.

지역 속 지역 경쟁에서 지역예술인으로 살아남기

강경철 청년문화예술기획단 문화기획자



내게 20대는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았고, 눈으로 보기 전에 몸을 움직여 표현하고 싶은 시기였다. 그중 나를 잘 표현하면서 스스로 정제될 수 있는 활동으로 음악이 마음에 들어왔다. 유쾌한 성격 덕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고,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목포대학교 화성학 수업을 들으며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음악수업을 시작으로 목포남성합창단의 막내로 들어가 활동하면서 어느덧 2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음악을 시작했던 그때 당시만 해도 합창이라는 분야는 20대 청년에게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장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로 시작한 고향 같은 합창단에서 13년을 보낸 후 2014년, 합창단과 작별을 했다. ‘왜 그만두게 됐을까’하고 스스로 물어보곤 했다. 대학 1학년 때 시작했던 합창은 어느덧 직업을 갖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된 단순 취미 예술활동의 현실, 혹은 한계 같은 것이었다.

지역 무대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고민

내 젊은 날의 열정을 쏟았던 합창단을 떠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른 무대를 찾았다. 목포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합창단을 창단한다는 얘기와 함께 감사하게도 내게 참여 의사를 물어왔다. 오랫동안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았지만, ‘합창’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2년간의 연습 후 2018년 첫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이전 합창단과는 다른 취미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라 단원 중 유일하게 솔로를 요청받았고, 꿈에 그리던 독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발전된 내 모습에 만족하며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에서 예술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 전공자들의 답답한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생활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전공자 못지않게 개인 예술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로 공연 무대를 보면 전공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무대 공간과 기회가 비전공자들과 나누는 것이 미묘하게 불편한 관계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지역적 문화의식 차이와 지역적 지원의 편성 차이에서 비롯된 소극적 갈등이기도 했다. 지역 생활문화예술은 전공자들의 교육과 예술활동의 기여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전공자들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공자들조차 설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한 지역적 한계에서 우리는 스스로 무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음악, 공연 분야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자립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청년문화기획사업단(청기사)’이 만들어졌다. 기획자, 디자이너, 댄서, 보컬, 작곡가, 그리고 전공예술인까지 20여 명이 모

여 공연기획을 시작했다. 전공, 비전공을 떠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속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

2019년, 그렇게 청년문화기획사업단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3월 목포 원도심 카페 ‘공감’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명사십리’에서 두 번, 5월에는 목포 ‘메리그레이크’에서 청년 네트워크 파티모임을 개최했다. 청기사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청년과 청년 예술가들과 목포문화재단의 참여로 ‘청년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토론회와 강연이 이어졌으며 노래, 댄스 등 풍성한 무대도 함께 만들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같이 활동을 시작해보려는 청년들의 연락이 이어졌다. 이를 기회로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받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악기는 물론 작곡, 보컬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렵게 얻어낸 쾌거였다. 사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예술활동을 해온 단체와 신생 단체의 경쟁은 ‘공룡과 병아리의 전투’를 연상케 한다. 우리에게 될 수 있는 두 다리와 생명을 담은 열정이 있지만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형태와 규모의 한계는 지역의 단체들이 균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로 인해 새로운 단체는 경쟁력 있는 단체로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해보고자 청gis는 단체의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패밀리 제도를 만들었다. 지원사업을 통해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자체 회비로 진행된 현장교육을

통해 형성된 팀들에게-프로필 사진과 디자인을 입힌 소개서, 음악 디렉션 등-투자했으며, 의미 있는 행사에는 단체 적립금을 활용해 활동비를 지급, 어떤 행사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예술인의 성장을 위한 관심과 지원

시작한 첫해, 첫 앨범, 첫 음악인 ‘청기사 1집’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탄생되었다. 우리 청년문화기획사업단에게 2019년은 정말 의미 있는 해가 아닐 수 없었다. 목포 출신의 이성현 작곡가의 참여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었고 작곡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다. 직접 작곡한 음원은 탄탄했다는 평도 들었고, 다양한 활동기회로 무대 실력도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앨범을 통한 2기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음악을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2020년 우리의 목표이다. 이런 목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도시 규모, 그리고 지역 구에 비례한 지원이 아닌 지역에 특화된 지원 사업이 발굴되어, 더욱 참여 가능한 지역형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예술인들은 ‘지역적 거주 의미의 단체’가 아닌 ‘지역의 색깔’을 담아내는 전문예술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해야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전에 지역이라는 한계나 격차 없이, 그리고 열정 가득한 지역예술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강경철

대학에서 컴퓨터교육학을 전공했으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목포남성합창단을 거쳐 청년문화사업기획단(청기사) 문화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음악 기획에 대한 꿈을 펼치고자 다양한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쉼과 노동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는 예술인

최용석 국악인



가끔 중2 딸아이가 사춘기 특유의 비판적이고 싸늘한, 그러나 여전히 내겐 사랑스러운 어조로 묻는다. “아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이 물음은 딸아이가 나에게 뭔가 불만을 느낄 때 뱉어내는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그러게, 나는 뭐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하게 한다. 예술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늘 증명하고 알리며 “나 여기 있소”라고 외쳐야 한다. 그래야 밥벌이를 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소리, 춤, 글, 그림, 재담과 같은 것들을 팔아 삶을 사는 노동자들이 예술가라고 치면, 나는 반쪽짜리 ‘예술가’이다. 요즘 내 삶의 반쪽은 예술, 나머지 반쪽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하며 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라도 버틸 수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버티며 앞으로도 꾸준히 내 소리와 이야기를 세상에 풀어놓고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내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무슨 예술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가끔 국악방송에서 한 달짜리 진행자로, 초대 손님으로 출연요청을 받는다. KBS 국악한마당에서 소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잊었던 사실을 깨닫는다. ‘아! 내가 국악인이었구나!’ 왜 이렇게 내 정체성을 모호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경계인이기 때문이다.

창작판소리로 담아낸 소외된 목소리

목포가 고향인 나는 고등학교 시절 판소리를 시작했다. 그때 집 옥상에서 큰 돌들이 지긋하게 내리누르고 있는 유달산을 바라보며 ‘하느님 나는 내 이야기로 소리할래요’라고 생각했다. 목포에서는 안애란 선생님께 소리를 배웠고 대학을 들어간 후로는 안 선생님의 스승이신 고성우향 선생님께 소리공부를 했다. 그래서 나는 김세종제 춘향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가 됐고, 더불어 성우향 선생님께 박유전제 심청가를 배웠다. 문화재 이수자이고 소리의 두 바탕을 당대 최고의 명창 성우향 선생님께 공부했으니, 국악인이라 해도 무엇 하나 이상할 것이 없을 내가 오늘날 왜 나를 경계인이라 자칭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유달산을 두고 바라던 소망 ‘하느님 나는 내 이야기로 소리할래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다. 내 이야기로 소리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판소리 한다는 것이다. 나는 93년도에 한국음악과에 입학했고, 군에 다녀와 1년간 해외에 머물다 복학 후 2000년에 졸업했다. 그 시절 판소리로 내 이야기를 하는 일, 젊은 소리꾼이 창작판소리를 하는 일은 자기 소리도 변변찮은 이들의 설익은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그때 故박동진 선생님의 창작판소리들과 임진택 선생님의 <오적>, <똥바다>, <오월광주>와 같은 소리들은 나에게 철쭉 같은 어둠 속의 밝은 좌표, 등댓불과 같은 작품들이었다. 앞선 이들의 작품들을 붙들며 외우고 필사하며 나는 습작들을 써 내려갔고 졸업 후 2002년, 창작판소리 단체 <판소리공장 바닥소리>를 만들었다.

판소리는 지금 여기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이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나를 비롯한 어떤 이들에게 당연히 그런 것이어야 했다. 그중에서도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차별과 억압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리하는 것이 판소리이다. 이런 생각을 담아낸 곡이 바로 바닥소리의 주제 노래라 할 수 있는 <바닥소리>인데 그중 이런 가사가 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송장도 들썩이는 흥겹고 좋은 소리로 풀어내야, 이 산천의 소리꾼!”

경계인으로, 하지만 여전히 예술인으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여기의 소리꾼으로 소리하고 살고자 애쓰며 꽤 많은 판소리와 판소리극을 만들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당시를 살아가던 짜장면 배달부의 이야기를 판소리극으로 만든 <방탄철가방-배달의 신이 된 사나이>, 생태와 통일을 주제로 닭 두 마리가 비무장지대에서 펼치는 모험 <닭들의 꿈, 날다>, 해녀들의 독립운동을 모티브로 만든 추리 판소리극 <해녀탐정 홍설록>, 흥부가의 제비노정기를 토대로 날지 못하는 흥부 제비의 모험과 성장을 이야기한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가혹한 노동현실과 무한경쟁을 비판하며 만든 <잔혹판소리 해님달님>,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소리극으로 만든 <솔의 노래>와 같은 작품들이다.

2002년부터 쉬지 않고 여러 일을 해오던 나는 2017년 깊은 우울에 빠져서 2018년 활동을 중단했고 그해 말에 이제껏 해오던 단체인 <판소리공장 바닥소리>를 그만뒀다.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에 남아있는 훌륭한 소리꾼들은 판소리와 소리극을 만들며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예술 활동을 접고 서울 당산동에 카페를 열어 바리

스타로 살았다. 그러니 이제 더욱 심한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유하는 삶에도 언젠가 봄날은 오겠지

예술가는 언젠든 백수이고 언젠든 직업인이다. 그래서 피곤하다. 쉼과 노동의 경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줄타기를 하는 고수들이 바로 예술가다. 예술가들은 어쩌면 숙명으로 경계인을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는 듯하다. 삶은 늘 등등 부유한다. 그러다 일을 만나고 새로운 노래와 춤을 만나고 결국 그 모든 걸 몸과 영혼에 품고 다니는 사람을 만난다. 끝을 모를 깊은 우울의 수렁에 빠져가고 있을 때 손 잡아준 이들 덕분에 여태 살아있다. 우울의 깊이는 다름지라도 주관적으로나마 나는 깊은 우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울을 가슴에 품고 꺼억 꺼억 울음 우는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 바로 그 우울의 자리가 억압과 차별, 배제와 폭력과 가난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자연스레 그리로 가고 거기서 노래가 되고 글이 써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게 바로 예술인이고 경계인이다. 이제 다시 한 발을 내디뎌본다. 삶의 여러 문제는 늘 거기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가끔 마음에 봄도 스치리라 믿는다. 그래서 엄동설한 겨울에도 손 내미는 이들과 눈 위에 발자국 내면서 발맞춰 걷고, 꽃피는 봄이 온다면 한껏 웃는 모습을 서로에게 내비치며 걷고, 단풍 들고 낙엽 지는 가을엔 그 정서를 담아 발장단에 노래하며 걷고, 다시 겨울이 온다면 차디찬 손 찾아 잡아 주고, 한기 들어 갈라진 내 손은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에 덧대서. 그래, 아슬아슬 싸목싸목 경계인으로 여전히 살아보자. ▲

최용석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다. 2002년, 판소리공장 바닥소리를 결성해 <방탄철가방-배달의 신이 된 사나이>, <닭들의 꿈 날다> 등을 만들고 소리했다. 수상으로는 창작국악극대상, 서울문화투데이, 이데일리 문화대상 등이 있다. 올해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대표를 그만두고, 현재 당산동커피의 판소리하는 바리스타이자 딸바보로 살고 있다.

전통예술가 해외 진출, 성공처럼 보이는 그 이면

송혜진 교수



퓨전과 융합의 시대를 맞아 전통예술이 여러 장르와 협업하며 트렌디하고 모던하게 창작되어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예전과 달리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왜 국내보다 해외에서 그 진가를 알아보는 걸까. 전통예술인들의 ‘해외 진출’이라는 반가운 현상 속 이면, 궁금하게 다가온다.

그룹 잠비나이 3집 음반 <온다>를 듣는다. 개인적으로 즐겨 듣는 장르는 아니지만 ‘잠비나이’ 음악이니까 경청한다. 그들의 새 음반 소식도 반갑고 어디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이들의 현재 생각은 무엇인지도 늘 궁금하다. 잠비나이는 전통예술 해외 진출을 거론할 때 첫손 꼽히는 그룹이다. 팀 전원이 전업 뮤지션으로 활동하면서 음악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해외 음반사와 기획사와 연계되어 1년의 4분의 1 정도 이상을 해외 무대에 선다. 경제적 보상을 포함한 현실의 어려움이 결코 적지 않으나 여전히 계속되는 이들의 활동은 참 대단하다. 그동안 이들은 다 열거하기 어려운 성과들을 내왔다.

소리 없이 이어져온 전통예술인들의 활동
주변으로부터 “요즘 전통예술도 꽤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그 이면에는 잠비나이가 우뚝 서 있다. 이례적인 이들의 성과에 대한 언론 보도 덕분이다. ‘글래스톤베리, 로스킬데, 헬페스트’ 같은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서 조명을 받았다거나, 세계 최고의 인디레이블 중의 하나인 Bella Union과 계약하고 활동한다는 소식들이다. 이들 말고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는 말로 추켜세울 음악가와 그룹들이 더 있었고, 지금도 있다. 블랙스트링은 독일 음반사에서 음반을 내고, 월드뮤직 분야의 음악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미국 NPR 뮤직의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소개되어 수많은 팬을 확보한 ‘싱싱밴드’도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자람의 활동도 언론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공명’은 그룹의 성격에 맞는 국내외 무대에 지속적으로 초청받으면서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 시선처럼 “전통예술계가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해외 진출’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자면 아직 멀었고,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전통예술의 해외진출
지난 10여 년 동안, 전통예술 분야의 해외 진출은 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저니 투 코리아(Journey to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성사되었다. 체계적인 선발과 지원, 사후관리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전통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양상이 달라졌다. 우선 많은 예술가

들이 이 기회를 통해 세계 시장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일부 해외 음악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된 듯하다. 10년 전에는 전혀 상상해 볼 수 없었던 큰 변화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외 기획자들은 대체로 한국 측의 지원조건에 맞춰 ‘팔릴 만한 콘텐츠’를 접촉하고, 이들을 비교적 안전한 시장인 ‘축제’에 연계했다. 티켓 파워를 담보한 극장과 비교하면 중저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무대였다. 음악가들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해외의 한국문화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초대받는 기회가 더 늘어나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이들의 활동을 지속하게 할 동력은 작동되지 않았다. ‘한국음악창작연구회’, ‘한국현대음악앙상블, 바람꽃, 비빙’ 같이 연주 실력이나 컨셉이 분명했던 이들은 물론, 꿈을 안고 뛰어든 신진들도 5년 넘게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전통예술, 국내 시장 활성화가 선결과제
전통분야의 세계 진출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생각해본다. 월드뮤직 시장 및 축제 무대 외로 진출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 전통음악 연주 실력과 창작 의식, 열정을 가진 음악가들이 너무 한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넓게 돌아보면 전통예술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음악계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실험적인 현대음악 무대, 성격이 다양한 여러 유형의 축제, 세계 유수의 극장프로그램까지 그야말로 세계는 넓고 가고 깊은 곳은 많다. 정보와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주어지는 기회에 따라 진출 전략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기획과 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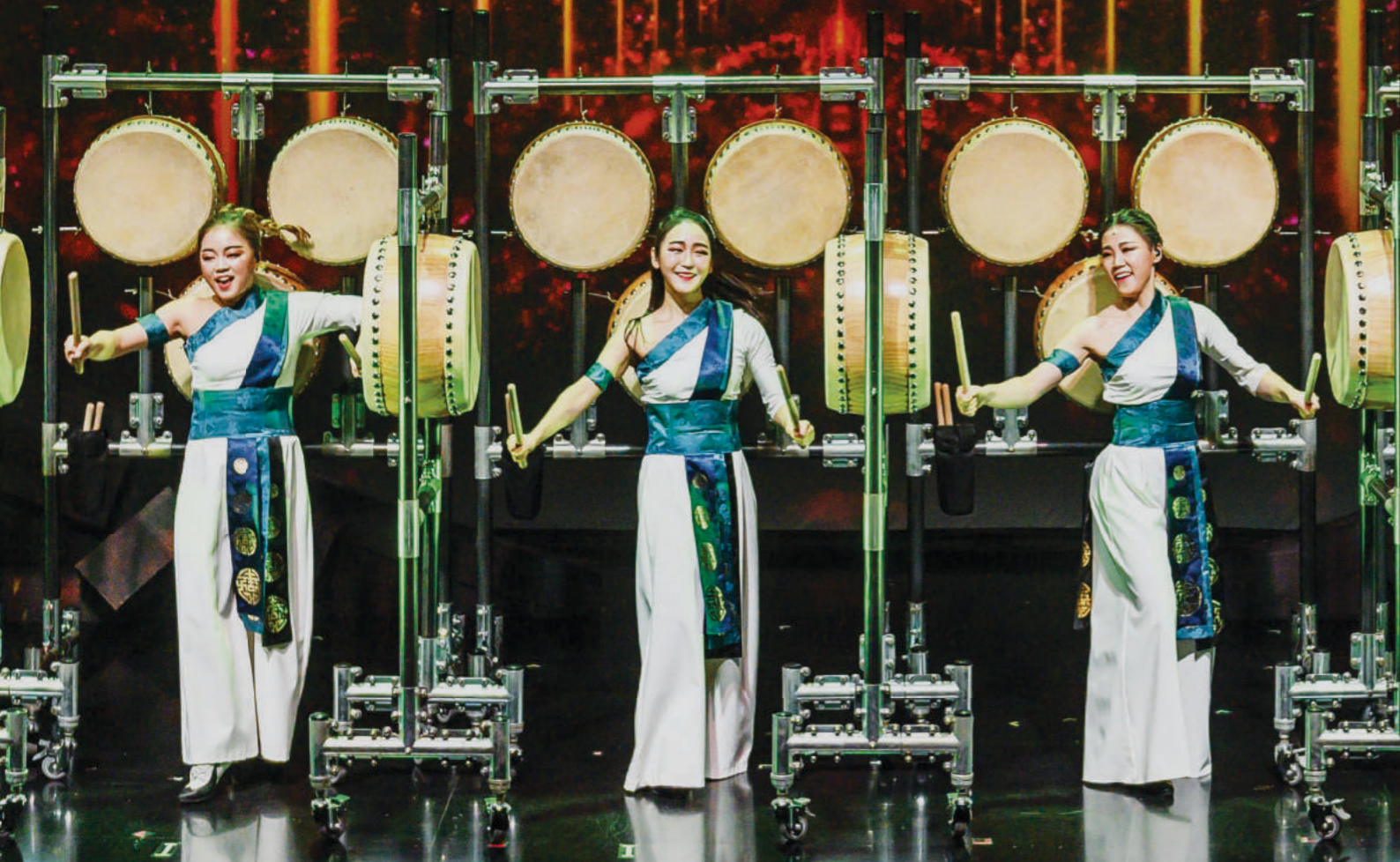
지먼트가 필요하다. 대중의 지지가 적더라도 아카데미 영역에서 전통예술을 깊이 있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 한 곳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활동을 펼쳐나갈 기회 등 현재 주목받고 있는 팀들과 다른 성격의 통로를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또 지금보다 더 나은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실력뿐만 아니라 이를 해외 청중들에게 전해주는 매개자, 즉 기획자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연주 실력만 갖고 안 되고, 예술가를 존중하지 않는 기획자 마인드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예술가와 기획자가 비전을 공유하며 상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지속해나가기 어렵다는 것 또한 생생하게 목격했다. 예술가 지원 못 지않게 기획자 육성, 지원이 시급하다.
국내 음악 환경도 참 문제다. 해외 진출로 얻은 환호와 명성이 보도에서 그칠 뿐 국내 무대활동으로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괴로울 정도(?)로 이어지던 투어가 정착 국내에서는 잡히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반짝 보도에 기본 좋게 맞장구치기에는 예술가들의 현실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해외 진출에도 성공한 전업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음악 시장의 활성화가 선결과제다.
잠비나이의 3집 <온다>에는 ‘그대가 지내온 아픔들이 빛나는 축복의 별이 되어’라는 긴 제목의 곡이 있다. 어려운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예술가로서의 불안한 미래, 그래도 ‘온다’에 희망을 거는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뭉클하다. 잠비나이, 잠비나이의 동료, 선후배 아티스트들이 기다리는 ‘축복의 별’을 그들끼리 기다리게 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

송혜진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학박사이자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을 지냈다. 국악방송 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열정과 서정의 무대의상, 누가 디자인했나?

지난 2017년 개막한 국악쇼 '썬앤문'. 전통과 현대의 색다른 만남이라는 평을 들으며 성황리에 공연 중이다. 국악 가락에 더해진 록·팝·일렉트로닉, 다채로운 영상 홀로그램과 조명쇼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그중 무대 위 국악인을 더 파워풀하면서도 아름답게 빛내주는 썬앤문의 의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글 **편집부** / 사진 **박성희**
이미지 제공 **키위미디어그룹**



의상에 정성을 더해 캐릭터를 살리는 아티스트

'썬앤문'의 **김정향** 무대의상 디자이너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직접 진행하신다고요. 무대의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제가 원하는 것과 연출팀이 할 수 있는 것의 접점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대본을 읽고 분석하며 연출님과 캐릭터에 대해 상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대·조명감독님과도 소통해요. 무대의상은 무대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수정도 계속되고,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느낌도 중요해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지요. 언제인가는 손톱 위로 미싱바늘이 박힌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긴박했다는 뜻이겠죠. 의상 수량에 따라 다르긴 해도 이러한 과정이 대략 한 달여 정도 걸립니다.

무대의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배우가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캐릭터에 맞으면서도 배우와 잘 어울리는 옷을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더블캐스팅일 경우 같은 캐릭터라도 의상은 다를 수 있어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커버해서 배우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완성하니까요. 그렇다고 무대에서 의상만 돋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배우, 무대, 조명 등의 요소와 의상의 조화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무대의상 디자이너로서 조금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다고요.

아는 안무 선생님께서 의상 작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넓은 견문을 쌓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주신 프로젝트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융합 데모데이입니다. 2014년도부터 이듬해까지 프로젝트팀 'CO.DE(코드)'로 활동했습니다.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원하는 의상 패브릭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팀의 목표였죠. 여러 분야의 사람과 직접 작업해보니 천이 아닌 3D로도 의상이 제작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상기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선 영감도 많이 받았습시다.

의상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요. 무대의상을 처음으로 제작한 공연을 회상하신다면요?

무대의상을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매년 '아시아연출가전'이 열리는데 대학원 들어간 해 5월 '2010 아시아연출가전'이 저의 첫 작품입니다. 독특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일본 공연팀의 의상을 염색해서 만들었습니다. 천연염색 자체를 원래 좋아했지만, 무대 뒤에선 옷걸이에 걸려 기성복에 불과했던 옷이 무대 위에선 훨씬 생동감 있게 변하더라고요. 조명, 무대, 배우의 연기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의상을 보며 느꼈던 희열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어요.

연극, 뮤지컬, 얼마 전에는 국악쇼 '썬앤문'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의상을 제작하셨어요.

의상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분야 상관없이 여러 장르를 작업했던 것 같아요. 기성복까지도요. 결국 무대의상으로 돌아왔지만요(웃음). 특히 '썬앤문'은 국악에 다양한 음악, 미디어아트 등이 결합된 공연이잖아요. 퓨전국악인만큼 의상도 과감하게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한복 자체의 느낌보다는 한복의 소재를 활용하되 현대적인 느낌을 추가하고 싶었거든요.



무대의상 디자이너로서 언제 보람을 느끼시나요? 반면에 고단함도 있었을 텐데요?

관람후기에 의상 이야기가 있으면 기분이 좋죠. 대부분의 관객은 공연에 집중하다 보면 의상에 큰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의상이 역할에 잘 맞았다거나 배우와 잘 어울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뿌듯합니다. 알아봐 주신 거니까요. 힘든 점은 아무래도 시간적, 물질적인 부분이죠. 모든 작품이 그런 부분에서 다 여유롭진 않다 보니까, 효율성 있는 소재·부자재 등을 찾아 컨셉에 맞는 디자인하는 것이 힘들지만 중요하지요.

무대의상 디자이너,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딱 10년만 버티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선배가 해준 말이에요. 제가 무대의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올해 딱 10년 됐거든요. 힘들기도 했지만 '무대의상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놓지 않은 건 딱 하나, 좋아서였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한 해가 끝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작품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매년 좋은 작품을 만나고, 그렇

게 딱 10년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디어를 쏟을 수 있는 10년이요.

무대의상 디자이너 직업은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대학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버티기 힘들다”였어요. 수입도 적지만 연극적인 공부부터 소재, 부속의 이해와 활용도까지 다 공부하고 알아야 하거든요. 전식 의상을 만들기 위해 전기를 공부해야 할 정도로요. 그림만 그린다고 옷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요. 힘든 분야지만 후배들도 처음만 잘 버텨보면 하는 마음이 크고, 또 저처럼 이 일의 원동력이 되어줄 재미도 찾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대의상 디자이너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이는 김정향 디자이너. 더 나은 작품을 위한 열정 하나로 달려온 그는 무대의상 디자이너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제작소 이름처럼 마술 같은 의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작업실 한켠에서 수많은 스케치를 완성하고, 옷감에 박음질하고 있을 그를 응원해본다. ▲

김정향
대학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했다. 현재는 무대공연의상 제작소,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대표이자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뮤지컬, 연극, 아동극의 무대의상 외에도 가수, 광고, 행사의 상을 제작하고 '마더피어', 'AOM'의 기성복을 디자인했다. 대표작으로는 '로물루스', '두영웅', '생각나라과자집' 등이 있다.



우리 전통이 누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장인의 모습으로

지역적 한계로 불편하고 소외되어도
예술인의 삶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도 부정하지 않는
생활인의 자세로

예술하는 이들이

전통예술인으로

지역예술인으로

노동예술인으로

우리 곁에 있어, 정말 예술입니다.



Viva! Artists

- 52 KAWF 레시피
- 54 KAWF 데스크
- 56 KAWF 상담실
- 58 KAWF News
- 60 예술인패스



기본에 충실한 맛집, 예술활동증명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다양한 복지사업! 재단의 사업을 알아보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예술활동증명. 요리 베이스가 음식의 맛을 한층 더 살리듯 예술활동증명으로 더욱 풍성한 복지사업을 누리보자.



* 자료준비, 신청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확인하세요.

Tip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절차를 밟아주세요.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함께 이야기

예술인복지위원회 집담회를 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2019 예술인복지재단 함께 이야기'라는 집담회가 지난 12월 19일 서울 대학로 소재의 공공그라운드에서 개최되었다. 김영철 예술인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예술인복지위원회 내 정책현장소통 소위원회, 공정예술생태 소위원회, 예술인 생활안정 소위원회, 사회보험확대 소위원회, 지역협력위원회 위원들과 재단 임직원, 그리고 예술인 복지를 위해 고민하는 예술인들이 함께하였다.

집담회 <함께 이야기>는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의 현재를 살펴보고,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월드 카페(World Cafe)*의 자유로운 토론방식을 차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4개의 주제(예술인 복지, 예술인 현실, 소통, 예술인복지위원회)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다. 소위원회 위원장들은 각 주제 테이블의 호스트로서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했다. 대화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 (함께이야기①) #예술인 복지: 2019년 현재의 예술인 복지
- (함께이야기②) #예술인 #현실: 예술인의 가치와 현실
- (함께이야기③) #재단 #소통: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바란다
- (함께이야기④) #예술인복지위원회 활동 방향

*월드카페 (World Cafe) 토론이란? 별도의 원고 없이 일정그룹의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테이블에서 토론하며 담론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를 촉진하여 주제별 이슈들을 다각도로 풍부히 하는데 있으며, 카페에서 대화하듯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홍경한
예술인 생활안정 소위원회 위원장

주제① 예술인·예술인 복지

- 예술인의 범주와 정의에 대한 연구와 노력 및 예술인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인지
- 청년예술인 집중 육성의 바람직한 이면에 그들이 장기적으로 예술활동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관계로 오히려 중견작가에 대한 배려 필요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의 증명이지 '예술인 증명'이 아님, 예술현장은 예증을 '예술인 증명'으로 보는 관점과 괴리가 크다는 점
- 예술인에 대한 '특수한 복지'는 가난이라는 삶의 방식과 작동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을 살펴야 설득력이 생김
- 경제적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진 창작준비금지원 같은 사업은 (삶의 방식·작동원리) 차원에서 정책 방향의 재정립 필요
- '예술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정의에 대한 논의 후, 창작노동자의 정체성, 노동권 등에 대한 정립·교육 필요
- '예술로서의 노동', '노동으로서 예술'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를 법의 근간 또는 보편적 체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



현린
사회보험확대 소위원회 위원장

주제② 예술인의 가치와 현실

- '예술인만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
- 예술인에게 기술도 있지만 그 외 보이지 않는 가치 또한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치화·단어화·언어화해야

- 예술인에 대한 작지만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평가하는 사회적 소스 부재에 대한 고민
- 예술인복지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가시적 지표 필요
- 예술인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략될 수 있으므로 '예술의 가치'와 '예술인의 가치'에 대한 구분 필요
- 예술인 스스로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에 대한 자각과 내면화
- 시혜적 예술인 복지가 많아질수록 예술인들을 급진거리게 하는 현상 발생, 예술인 스스로 갖추어야 할 자존감에 대한 논의 필요
- 예술인의 기본권, 인권적 가치, 다양성과 노동권 필요



오진이
정책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장

주제③ 재단·소통

- 전산화된 시스템, 1:1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소통의 어려움 등 환경과 시스템의 한계가 있음
- 불공정행위 신고 상담의 경우, 법률적·전문적 영역인 관계로 담당자 이동 시 연계성 부족
- 정부 정책이 예술복지에 대해서는

- '시혜적'인 마인드로 대상화하는 것에 크나큰 문제점 제시
-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상담용 앱, 챗봇 구축·운영 고려
- 예술현장의 중간 관리자 육성의 필요성 및 <예술인복지위원회>가 이들이 권력자가 되는 것에 대한 주의와 감시 역할
- 자기 주체성이 강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세대별 소통 톨 개발 필요
- 정부와 예술인 간 소통의 창구로서 <예술인복지위원회>가 중간 역할,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퍼실리테이터처럼 허브 필요



박소현
공정예술생태 소위원회 위원장

주제④ 예술인복지위원회의 활동 방향

- 위원회가 재단 직원들, 자문위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고민하는 통로로서의 역할 수행
- 예술인 복지 정책·사업에 대한 통역자로서 위원회의 역할 필요
- 노동·환경 등에 대입하지 못하는

- 법률·제도에 대한 검토, 예술의 가치에 대한 접근과 기준, 새로운 정책 제안 등이 위원회의 역할임을 인식
- 예술인 복지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헤드쿼터의 역할 필요, 예술인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극적 추진에 위원회의 역할 담당 필요
- 문체부 산하 수행 기구가 아닌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추진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보완 개선 필요
- 위원회는 공식적 기구, 정제된 언어로 정리하여 문체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과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자리를 만드는 역할 필요

예술인이 묻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답하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동안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혹은 사소해서 못했던 질문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Q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 확대되어 올해부터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도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올해에는 총 12,000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가구원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가구원의 소
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단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자께서는 소득인정액과 관련한 별도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께서 제출하실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 사본 1부입니다. 단, 주민
등록등본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발급일자 14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우편 또는 온라인(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net)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창작준비지원팀 02-3668-0200

Q

보조단역을 하고 있는 연기자입니다. 목돈이 없어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워 전셋집을 구하던 중 한
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득도 낮고 신용도 안 좋는데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대출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
용도판단정보 보유자거나 연체 중인 사람은 제한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주
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가능하며 이 외 다른 유형은 모두 불가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질권설정을
하므로 이 점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홈페이지(www.artloan.kr)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팀 02-3668-0238~9, artloan@kawf.kr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발족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은 지난 11월 18일(월),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재단은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지방자치 협·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김윤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임진아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장, 김우태 경남예술인복지센터장,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희선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박상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원 사무총장, 김성수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등 외부위원 9인을 위촉하였으며, 이외에 재단의 정희섭 상임이사, 김영철 이사, 이은봉 이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김윤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역별 예술인 복지 정책 및 사업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앞으로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실행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단 정희섭 대표는 “예술인복지정책이 각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고루 닿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과 국민연금공단(연금이사 김용국, 이하 연금공단)은 지난 12월 6일(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과 연금공단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

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제도 홍보 등을 위해 상호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재단은 특히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직업의 특성상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편입을 위해 표준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예술직업군의 사회보장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지난 12월 31일(화)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 직원대표 2인의 인권경영선언문 낭독을 통해 전 임직원이 평등한 조직문화 구성 및 인권존중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선언식에서 낭독된 인권경영선언문은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10대 운영원칙에 기반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인권 기준과 규범 존중 ▲개인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산업 안전의 보장 ▲정책수행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인권침해 구제방안 등 총 8개 항목이 담겨 있다. 재단 정희섭 대표는 “전임직원이 하나 되어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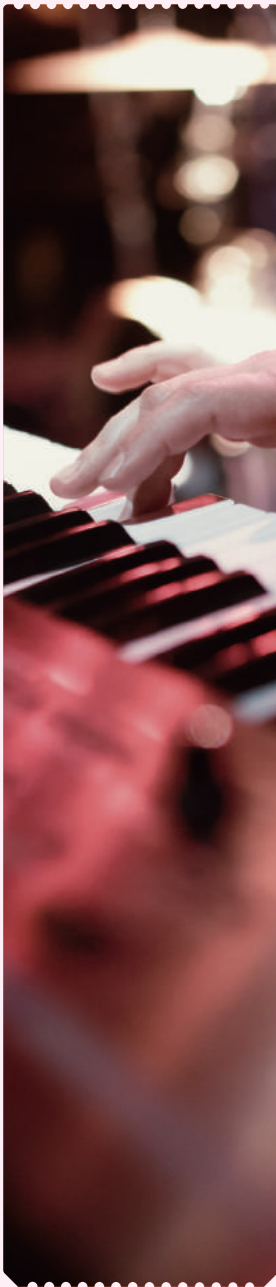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월 21일(화)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예술인과 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재단 정희섭 대표는 “2020년 달라지는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시고 창작활동을 이어가시는 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익 제고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본격 활동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1월 30일(목)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강의력 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은 2018년부터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며 2018년에는 19명, 2019년에는 17명의 신규 강사를 위촉했다. 재단 정희섭 대표는 “강사양성 이후 보수교육과 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olume.33

ART PASS

Artists Welfare Magazine

artpass.kawf.kr



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대구

2020. 2. 14(금)~2. 15(토)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B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한울림소극장

연극 <인연>

2020. 1. 16(목)~2. 29(토)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천안예술의전당

장일범의 해설이 있는 11시 콘서트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2020. 2. 26(수)
전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부산문화회관

2020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부산

2020. 2. 15(토)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부산시립미술관

시오타 치하루:영혼의 떨림展

2019. 12. 17(화)~
2020. 4. 19.(일)
입장료 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00원



전주미술관

2020 근대작가 작고전,
효산 이광열展

2020. 1. 7(화)~3. 31(화)
입장료 3,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3·15아트센터

Book Island(북섬)展

2020. 1. 9(목)~3. 1(일)
입장료 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토탈미술관

A.I. 632:
Design Around Table展

2020. 1. 13(월)~2. 12(수)
입장료 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무료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연극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2020. 2. 7(금)~2. 16(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광명시민회관

무경계 음악 콘서트
<선우정아X세소년>-광명

2020. 2. 13(목)
R석 40,000원
S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예술의전당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OES의
베토벤 시리즈 IV(2018-2020)

2020. 2. 25(화)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C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40%



서강대 메리홀

연극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2020. 2. 6(목)~2. 9(일)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대학로 스타시티

연극 <흑백다방>

2020. 1. 7(화)~4. 12(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알과핵 소극장

연극 <아비>

2020. 2. 5(수)~2. 9(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원



롯데콘서트홀
경기필하모닉 2020 앤솔러지 시리즈 I <마시모 자네티 & 다니엘 뮐러 쇼트>-서울

2020. 2. 28(금)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C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예술의전당
제12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수상자 음악회

2020. 2. 12(수)
R석 200,000원
S석 150,000원
A석 100,000원
B석 50,000원
C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서울돈화문국악당
춤길 동행 舞窮舞進: 김태훈의 춤 "결" II

2020. 2. 14(금)
전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대학로 선돌극장
연극 <마터(MARTYR)>

2020. 1. 29(수)~2. 16(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국립극장
NT Live <한 남자와 두 주인>

2020. 2. 6(목)~2. 9(일)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국립극장
NT Live <리먼 트릴로지>

2020. 2. 8(토)~2. 16(일)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국립극장
NT 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020. 2. 13(목)~2. 19(수)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서울돈화문국악당
그냥 노래

2020. 2. 18(화)
전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북촌나래홀
뮤지컬 <세레요한>

2019. 12. 21(토)~2020. 2. 29(토)
전석 4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연극 <섬마을우리들>

2020. 2. 8(토)~3. 1(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예술의전당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콘서트

2020. 2. 13(목)
일반석 25,000원
3층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예술의전당
레티시아모레노 with 뉴탱고퀸텟 피아졸라콘서트

2020. 2. 15(토)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B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서울돈화문국악당
소리를 엮다

2020. 2. 19(수)
전석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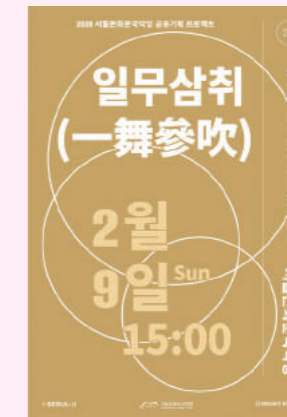
예술인패스 할인 30%



서울돈화문국악당
그리고, 이어지다

2020. 2. 25(화)
전석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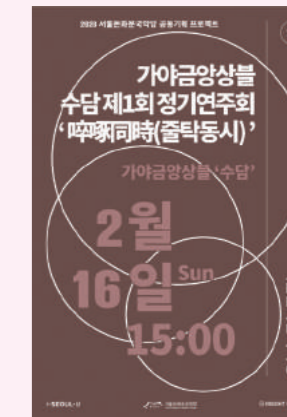
예술인패스 할인 30%



서울돈화문국악당
일무삼취(一舞參吹)

2020. 2. 9(일)
전석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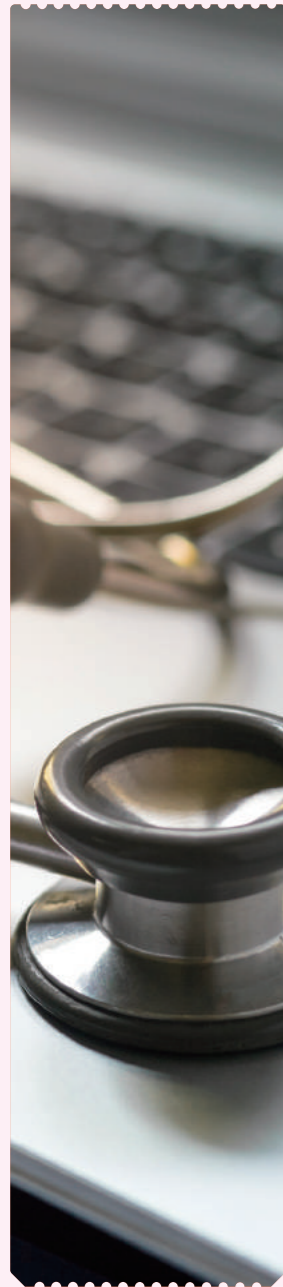
예술인패스 할인 30%



서울돈화문국악당
가야금양상블 수담 제1회 정기연주회 '쉴타동시'

2020. 2. 16(일)
전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예술인 건강 혜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예술인을 위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예술인패스 소지자가 혜택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할인(공단 직원 수준으로 제공, 일반수가 대비 약 50% 내외), 독감예방접종 할인, 업무상 특별진찰 시 승인 전 치료 서비스 제공(산재 신청 시 승인 전이라도 공단 소속 병원에서 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정보(전국 7개 병원)

연번	병원명	소재지	건강관리센터 정보
1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032)5000-222 www.kcomwel.or.kr/incheon
2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일동)	031)5001-112 www.kcomwel.or.kr/ansan
3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055)2800-481 www.kcomwel.or.kr/changwon
4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061)7207-162 www.kcomwel.or.kr/suncheon
5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042)6705-196 www.kcomwel.or.kr/daejeon
6	태백병원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033)5803-153~4 www.kcomwel.or.kr/taebaek
7	동해병원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	033)5303-251 www.kcomwel.or.kr/donghae

더 많은 생활 속 할인은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패스를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패스 모바일 페이지(first.kawfartist.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3668-0200, artpass@kawf.kr



예술가의 안전벨트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산재보험을 통해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보험료의 50-9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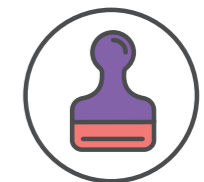
서류 준비

통장사본
보험료 지원금 환급 계좌
예술활동 계약서*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특례신청용
완료자는 해당없음 통장사본만 준비



온라인 가입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입 완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가입대행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 승인

